

익산 쌍릉, 백제왕도 무덤이었다

사비기 굴식돌방무덤 인골 담은 나무상자 발견

2기 묘가 나란히 있어 '쌍릉'으로 불리는 익산 쌍릉(사적 제97호)에서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 굴식돌방무덤과 현실 안에서 인골을 담은 나무상자가 발견되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대왕릉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원규)에서 수행하고 있다.

쌍릉(대왕릉, 소왕릉) 중 대왕릉은 입구가 중앙에 있으며, 단면육각형의 현실(女室)로 축조된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의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으로 확인되었다. 대형의 화강석을 정연하게 다듬은 돌을 이용하여 축조했는데, 현실의 규모(길이 378cm, 너비 176cm, 높이 225cm)는 부여 능산리 왕릉군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동하총의 현실(길이 327cm, 너비 152cm, 높이 195cm)보다도 더 크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된 사비기 백제의 왕릉급 무덤으로는 처음으로 관축(版築) 기법을 사용하여 분봉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으로 대왕릉의 세부적인 관축 양상과 봉분의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백제 사비기 왕릉급 무덤의 조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과 익산시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익산 쌍릉'의 발굴 조사에서 백제 사비기의 전형적인 굴식돌방무덤과 현실 안에서 인골을 담은 나무상자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석양동에 위치한 쌍릉 중 대왕릉의 발굴 모습.

또한, 현실 내부 중앙에 있는 화강암 재질의 관대(棺臺) 맨 위쪽에서 인골이 담긴 나무상자가 발견되었다. 1917년 일제강점기 조사 시, 발견된 피장자의 인골을 수습해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이 인골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향문합승실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데, 과학적 조사를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면 피장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단(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대왕릉 발굴조사 성과를 4월 3일

오후 2시 발굴현장에서 공개하고,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1회(오후 2시) 현장 방문객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굴 현장은 익산시 석양동 산 6-12에 위치해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추가 발굴조사와 석재, 인골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익산 쌍릉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익산지역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통해 백제 왕도의 역사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도민들의 문화혜택을 높인다

'얼썬~ 소리랑 놀아보자' · '꼬마 작곡가' · '마리첼' 등 소리문화전당, 예술교육 프로그램 국비 2억2000만원 확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의 '2018 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총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 2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들은 '얼썬~ 소리랑 놀아보자' '꼬마 작곡가' '마리첼' '아트쇼 탐험대' '예술놀이터 SORI' 등이다.

전당은 이들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얼썬~ 소리랑 놀아보자'는 판소리 '흥보가'를 주제로, 판소리와 연극놀이를 연계한 놀이형식의 통합예술교육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등 24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접수는 5월 이후 시작한다.

'꼬마 작곡가'는 뉴욕필모케스트라가 개발한 어린이 음악창작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음악을 배운 적 없는 10~13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작곡한 음악을 전문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연주한다. 4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연예술분야의 진로탐색과 연계한 공연제작

작형 프로그램인 마리첼은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뮤지컬이나 연기에 꿈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해 볼 수 없었던 뮤지컬 제작과 공연 지원을 통해 꿈을 응원한다. 오는 12일까지 청소년 뮤지컬단을 모집한다.

아트쇼 탐험대는 예술이론부터 공연관람까지 학교단위로 지원해 미래의 관객을 육성하는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뮤지컬 명성황후'와 '리처드용재오닐&임동혁 듀오 리사이클'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사전 교육하고 관람할 예정이다. 접수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예술놀이터 SORI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시각적 표현활동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색깔 이야기, 드로잉 놀이 등 다양한 미술 교육을 통해 토요일 여가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접수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모집공고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7일 식목일 들꽃 나눔 행사

전주역사박물관은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아 '식목일 들꽃 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을 찾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만날 수 있는 백양화, 비비추, 물단풍, 사계페랭이를 200가지(선착순)과 나눔 예정이다.

이동희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공휴일 폐지 이후 열여섯 개 식목일을 기억하고, 작은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지역의 문화유



산과 박물관을 아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전통춤이 갖고 있는 아홉가지 빛깔'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은 순회공연 '해설이 있는 아홉 빛깔, 우리춤 명작'을 오정해의 해설로 선보인다.

오는 6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선 누구나 쉽게 한국무용을 즐길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해설로 춤의 이해를 돕고,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춤에 이르기까지 우리 춤의 향연을 펼친다.

이날 공연은 여미도 무용단장이 부임 후 갖는 첫 무대로, 한국적 정체성과 예술성이 담긴 작품들로 준비했다. 한국춤의 내적 아름다움인 고유함과 역동성이 골고루 스며있는 '정중동의 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도립국악원 무용단 순회공연

선비정신 담은 '풍류시나위'

창작무용 '춘상' 등 선보여

무용단은 춤 기본을 군무형태로 재구성한 '춤, 그 신명'을 여는 무대로 갖는다.

이어지는 무대에서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여인들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한 창작무용 '춘상'과 한국 여인들의 우아한 지태와 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여인화사', 그리고 옛 선비들의 정신과 기품을 담은 '풍류시나위'를 기개와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표현한

다. 또한 양손에 화려한 부채를 들고 폼다 폼다 하면서 추는 '부채춤'과 조선시대 남녀의 은밀한 사랑의 감정들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초승달 연가'를 무대에 올린다.

정중동의 절제된 춤사위로 신명과 한의 정서를 담은 '살풀이춤'과 장고를 어깨에 메고 다양한 장단에 발맞춤 하는 '장고춤'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뽐낸다.

무대의 대미는 농악을 기본으로 다양한 가락에 어우러지는 '노닐며 솟구치며'로 꾸민다. 다양한 가락과 구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무대로 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오늘 태권도원 상설공연 'The 춘향'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18년 태권도원 상설공연 - The 춘향'을 3일 태권도원 T1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상설공연은 The 춘향으로 우석글로벌 태권도아카데미가 올 연말까지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공연은 태권도원 휴관일인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1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공연하게 되며 공연 관람비용은 태권도원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상설공연 The 춘향은 태권도의 격과 품새 등을 중심으로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이다.

특히, 상설공연 The 춘향이 끝나고 무대 위에서는 태권도원 시범단과의 단체 기념촬영 및 태권도 상설체험 프로그램인 '태권춤바텐스'와 'The One 태권체조'를 현장에서 신청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The 춘향은 430여석 규모의 T1공연장내 음향 및 조명 등과 어우러지는 등 수준 높은 태권도 공연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5일 남원서 '광한루원 음악회'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공연 '2018 광한루원 음악회'가 오는 5일부터 관객들을 맞이한다.

2018 광한루원 음악회는 남원의 대표 관광지이자 문화유적인 광한루(보물 제281호)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춘향전' 속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춘향전의 이야기와 국악공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7·8월 춘향제기간 제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음악회는 광한루원의 자연과 어우러진 아늑한 자연음향 공연을 콘셉트로 한다.

이는 한 공간에서 자리를 잡고 공연을 관람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연자들이 자리를 잡고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이야기꾼 방식의 재담과 함께 길안내를 받으며 진행되는 스토리텔링 공연 형식을 띤다.

춘향사당에서 광한루와 방장정, 영주각, 완월정을 거쳐 월매까지 장소에 얽힌 이야기와 판소리 적성가, 사랑가, 살풀이춤, 민요,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우선 시에는 취소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2018 정음벚꽃축제

벚꽃 향기 흠날리는 정음! 벚꽃 눈짓을 따지다!

4. 6(금) ~ 4. 10(화) 5일간 정음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4. 6(금) 19:00 / 식전행사 17: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 6(금) ~ 8(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캐릭터 인형탈, 애니멀 브라스밴드, 로맨틱 포토존, 길거리 DJ공연, 벚꽃사진 콘테스트

벚꽃 야간 경관 조명 3.31(토) ~ 4.15(일)

제22회 정음예술제 4. 6(금) ~ 4.10(화)

제14회 자생화전시회 및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 4.6(금) ~ 4.10(화)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6(금) ~ 4.10(화)

차량통제안내

정주교 ~ 정동교

4. 6(금) 13:00~23:00
4. 7(토)~8(일) 09:00~23:00

남건

소현위

라봄

바다새

왕야비

정주

조연비

이지은

진용집

김대연